

기후위기 대응 10년 종합계획 수립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오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6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내년 5월까지 수행되는 이번 용역은 시민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막을 대책 마련이 목적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주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포괄하는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주시 기후변화 기본현황 분석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2050년 탄소중립 비전 설정 및 감축 목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등 향후 10개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전주시는 6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구의 날'인 지난 4월 22일 2050년까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0)로 만드는 '전주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이후 부문별 구체적인 정책 마련 및 실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탄소중립 실행 행정협의회도 가동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탄소 중립은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쉬고 꿈을 꾸며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지침이 되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난 100년간 온도 상승도 지구 평균온도 상승보다 훨씬 높은 1.8°C에 이르는 등 온난화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올 연말까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학교 밖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및 학과 선택을 돕기 위한 '직업멘토링 Job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설계 지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업멘토링 Job을 잡아라! 진행

전주시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를 도왔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학교 밖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및 학과 선택을 돕기 위한 '직업멘토링 Job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은정 연세요양병원 간호사와 최갑열 전북지방경찰청 경감이 직업인 멘토로 참여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멘토들에게 '간호사와 경찰 채용과정과 방법' 외에도 '원할

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향후 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질문을 통해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얻는 기회가 됐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사회진입 후 적응을 위한 사업 운영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jisangdam.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맞손'

전주시·전북은행·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전주시와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손을 맞잡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영업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올해 상반기 6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4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

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최대 4000만 원의 대출자금 보증과 더불어 5년간 본인부담 1%를 제외하고 최대 5%까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연 1% 수준에 해당한다.

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금액으로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과 함께 초기에 원금상환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한 거처상환 방식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879점(신용등급 기준 3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 지점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했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지역 평생학습기관들, 탄소중립 실천 앞장

전주지역 평생학습기관들이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이 없는 탄소중립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6일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전주아이돌 소비자협동조합,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희공간을 활용해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 등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전주아이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덕진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5개 청소년기관 △금안노인복지관을 비롯한 6개 노

인복지기관 △평화동마을신문 △남부시장 청년불 △우아생활문화센터 등이다.

참여 기관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콘텐츠 개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 실행 및 행·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용 영상 콘텐츠 3편(1편 2050 탄소중립, 2편 분리수거, 3편 한 끼 채식 실천)을 개발해 협약 참여기관과 시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